DOI: https://doi.org/10.28977/jbtr.2012.4.30.140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채은하*

1. 문제 제기

> "1911년에 『셩경젼셔』가 완역 출간됨으로써 우리는 처음으로 한글 성경전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글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형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을 확립하고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이 성경을 수차례 개정해 오면서 '하나의 성경'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위의 글은 2011년 4월 4일 대한성서공회가 한글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행사를 기념할 때 권의현 사장이 한 인사말의 일부이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그 덕택에 한글 번역 성경들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세기 한국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의 소리를 담아내기에는 100년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글성경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각과 중립적인 호칭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에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다양하고 극적인 역사적 환경들과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는 사회적 변천에 따라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숨 가쁘게 담아내었다. 그 가운데 장애인 호칭 역시 한국의 근대사에서 빠르게 변화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시선이 그만큼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경멸이나 욕설로 쓰이는 병신[1]이나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1) 근대 이전의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병신(病身), 잔질지인(殘疾之人), 잔폐지인(殘廢之人), 폐질자(廢疾者) 등으로 불렀다. 이들 가운데 병신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어들은 모두 중국에서 건너온 말로서 식자층이 사용한 문어(文語)에 해당된다. 병신이라는 말은 본래 한자어 病身

불구자라는 말은 현재 공적인 자리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장애인의 이미지, 특정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갖는 집단적 편견이나 무의식 등이 이런 호칭들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번역되고 개정된 한글 성경들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소경, 앉은뱅이, 꼽추, 귀머거리, 절름발이와 불구자와 같은 장애인 호칭들은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된 것들이었다. 과거 이러한 장애인 전체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가장 대중적인 호칭은 '병신'이었다. 장애에 대하여 도덕적 가치나 판단을 담고 있는 '병신'은 질병이나 장애는 악이자 나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런 까닭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인간 자체도 죄악시하거나 폄하한다. 더욱이 병신이라는 호칭은 병과 도덕적 죄악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정상/비정상, 병/건강, 우/열, 장애/비장애를 차별하고 경계 지운다. 그러므로 병신이란 용어는 각종 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그 정신도 결함과 문제를 지닌 인간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병신이란 개념에는 악, 비정상, 못남, 도덕적 저열성, 어리석음, 분수를 모름, 기생적임, 성가심 등 온갖 부정적인 표상이 있다.[2)]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사용한 1887년에 나온『예수셩교젼셔』를 비롯하여『개역』(1938/1952/1961)과『개역개정』(1998)이 있다. 이 외에『표준새번역』(1977)과 이것을 개정한『새번역』(1993)과『공동』(1977)과『공동개정』(1999)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여 현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 천주교회가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단독으로 편찬한 또 다른 번역본,『성경』(2005)을 첨가할 수 있다. 이것들은 최초의 한글성경『예수셩교젼셔』가 1887년 번역된 이래 2005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번역하고 개정된 공인번역본들로서 이것들이 번역된 시대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과 한국인의 인식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

에서 온 말로서 그 원의는 병든 몸 혹은 아픈 몸이라는 뜻이다. 병신이란 말의 원의에는 가치적 태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시선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 말은 그 뜻이 바뀌어 장애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병신이라는 단어는 몸을 중심으로 정상/비정상, 주체/타자, 우/열, 강/약, 유시(有視)/무시, 동화/이화(異化)를 뚜렷이 구분하는 성향을 가진다. 한 마디로 말해 병신이란 말에는 차별과 배제와 억압의 시선을 담고 있다. 병신을 이런 의미로 쓴 동아시아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고전문학연구」24 (2003), 311-312.

2) Ibid., 349-350.

므로 이런 한글 번역본들이 장애인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호칭이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장애인에 대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호칭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초의 한글성경『예수셩교젼셔』와『개역』과『개역개정』과『표준새번역』과『새번역』그리고『공동』과『공동개정』과『성경』을 중심으로 이 번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장애인 호칭들과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이라 할 때 1990년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이 발휘된 이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4종류의 장애인들(정신지체 제외)에 대하여 각 한글 번역본이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변화를 찾고 나아가 장애인의 시각에서 대안적인 장애인 호칭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 호칭이 가장 중립적으로 수정 보완될 때라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성경이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되고 건강한 장애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글 번역본들의 장애인 호칭

2.1.『예수셩교젼셔』[3]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

1887년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예수셩교젼셔』는 장애인에 대하여 앉은뱅이(안잔방이, 마 11:5; 15:30; 21:14; 막 9:45; 눅 14:13, 21), 절룩발이(막 9:45), 병신(마 15:30, 31; 18:8; 눅 14:13, 21), 소경(쇠경, 마 9:27, 28; 11:5; 12:22; 눅 14:21), 벙어리(벙얼이, 마 12:22; 15:31; 막 7:37; 눅 1:22; 11:14)와 귀머거리(귀먹당이, 마 11:5; 막 7:32; 9:25)와 같은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말, 이 번역본이 나왔던 근대 한국 사회의 장애인 호칭들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성경조차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의 경멸 내지는 무시하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예수셩교젼셔』가 번역된 19세기 말에 발행된 독립신문에서 '병신'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과 일치한다. 박희병은 '병신'이라는 용어가 원래는 경멸적인

3)『예수셩교젼셔』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4복음서만을 다룬 나채운 번역 해석,『예수셩교젼셔』(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를 참고하였다.

뜻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무렵부터 그런 의미의 용례가 보이기 시작했다가 19세기 중반쯤에 이르러서는 병신은 아예 경멸적인 언어로 고정되었다고 한다.[4] 그러다가 개화기에는 병신 즉 장애인들은 부국강병을 가로막는 해악이자 타도되어야 할 은유로 사용되었고[5], 지금도 병신의 이런 이미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목민심서에 따르면 사회의 보호와 복지 혜택을 입어야 할 대상으로 관질(寬疾)이 있었는데 질(疾)이라 함은 불구의 폐질자(廢疾者)를 말하는 것이요 폐질이란 봉사, 절름발이, 나병환자, 간질환자, 벙어리, 꼽추, 고자 등으로서 자력으로 의식주 해결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미움과 경멸을 받았다[6]고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지칭하는 이런 호칭들은 자연스럽게 차별하고 업신여겨도 될 대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장애인 호칭들이 『예수셩교젼셔』에서 그대로 발견된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무시나 차별은 당시의 자연스런 사회적 현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수의 이런 호칭들이 21세기에 개정된 한글 번역본들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성경 번역자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난 세기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호칭들이 각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찾아내고, 새 번역 작업에는 이 시대의 정신과 용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2. 『개역』성경(1938, 1952, 1961), 『공동』(1977), 『표준새번역』(1993)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

지난 20세기 한국 교회가 성장하던 시대의 한국 개신교 교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성경은 『개역』성경이었고, 20세기 후반에 『공동』과 『표준새번역』이

4) 박희병은 18세기의 문헌들, 이를테면 「완월회맹연」과 「개수첩해신어」, 「인어대방」, 「존설인과곡」과 「한듕록」을 통해 '병신'의 역사적 의미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352-353.

5) 박희병은 **병신**의 용례를 독립신문에서 인용하고 있다(Ibid., 356-357): "만일 구습을 버리지 못ᄒᆞ고 다만 안져 한탄만 ᄒᆞᄂᆞᆫ 사람은 **병신** 구실만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니"(1897.2.13의 론셜); "밤낫 남의게 치쵸를 밧고 업수히 넉임을 밧고 약ᄒᆞ고 가난ᄒᆞ고 무식ᄒᆞ고 어리셕고 **병신** 구실들을 ᄒᆞ면서도 그리도 그거슬 즐겁게 넉여 남이 업수히 넉여야 분히 넉이ᄂᆞᆫ 생각도 업고"(1896.8.1의 론셜); "죠션 사ᄅᆞᆷ은 내일은 엇지 ᄒᆞ엿던지 당쟝만 생각ᄒᆞ고 만ᄉᆞ를 경영ᄒᆞ니 갈쇼록 졈졈 궁ᄒᆞ고 어둡고 약ᄒᆞ고 **병신**만 되지 해가 갈쇼록 나아질 여망이 없ᄂᆞᆫ지라"(1896.9.24의 론셜); "운슈만 기다리고 안졋ᄂᆞᆫ 사ᄅᆞᆷ은 **병신**이요 셰상에 쓸데업ᄂᆞᆫ 사ᄅᆞᆷ이라"(1896.8.18의 론셜).

6) 한국재활재단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서울: 양서원, 1997), 29-30.

새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한국인의 성경 사랑이 비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한글 번역본들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은 한국 사회와 교회의 장애인 인식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한국의 교회 강단에서 사용되었던(혹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세 종류의 한글 번역본들에 나타난 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에 대하여 '앉은뱅이', '절뚝발이', '불구자', '병신'과 '저는 자'로, 언어/청각 장애인에 대하여 각각 '벙어리'와 '귀머거리'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소경'과 '장님'과 '눈먼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아래의 표1 참고). 개역은 그것의 번역 시기가 1938년(1952/1961)이었던 만큼 장애인에 대한 호칭 역시 당시의 사회가 그러했듯이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용어[7]로 불리고 있다. 1977년에 번역된『공동』역시 1887년의『예수셩교젼셔』나『개역』[8]과 거의 다르지 않게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과 경멸이 담긴 호칭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한글 번역본 가운데 가장 늦게 번역된『표준새번역』(1993)은 이런 병폐를 의식하였던지 장애인들을 완곡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가시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를테면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과 눈먼 사람 등으로 번역하였다. 이 같은 세 개의 한글 번역본들이 사용하는 장애인 호칭들을 아래(표1)와 같이 비교 정리할 수 있다:

표1을 볼 때 20세기 후반 한국 교회가 사용한 한글 번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장애인 호칭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여전히 무시와 멸시와 차별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용어들임을 알 수 있다.『표준새번역』은 이런 문제를 의식한 탓인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가장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지체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표준적 호칭과는 거리가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지만 그 시대의 보편적 언어와 가치를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장애 관련 본문들은 문자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

---

7) 우리나라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1920년 이후 영화제목에 나타난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양하다. 그 중에는 1920년대에 제작된「멍텅구리」(1926)를 비롯해서「벙어리 삼룡」(1929), 1950년대의「백치 아다다」(1956),「백의 천사와 꼽추」(1959), 1960년대「바보온달과 평강공주」(1961),「벙어리 삼룡이」(1964),「팔푼이 애꾸눈」(1969) 등이 있다. 1970년대에는「애꾸눈 박」(1970),「홍콩의 애꾸눈」(1970),「황야의 외팔이」(1970),「원한의 두 꼽추」(1971),「비련의 벙어리 삼룡」(1973),「돌아온 외다리」(1974),「외팔이 권왕」(1978), 그리고 1980년대에는「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외팔이 여신용」(1982),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제목들을 보면 20세기 한국 사회 전체는 장애인의 장애를 비하 내지 비웃음 내지는 오락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573.

8)『셩경젼셔 개역』(1938)은 최초로 완성된『개역』성경이다. 이것을 다시 수정한 것이『개역한글판』(1952/1961)이다.

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최근에 개정된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은 장애인 호칭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표1> 장애인 호칭에 대한『개역』,『표준새번역』,『공동』 비교

현재의 장애인 공식 호칭	『개역』 (1938/1952/1961)	『공동』(1977)	『표준새번역』(1993)
지체장애인	앉은뱅이[9], 병신[10], 불구자[11], 저는 자, 절뚝발이[12],	불구자[13], 절뚝발이[14], 절름발이[15], 곰배팔이[16]	지체장애인(자)[17], 다리 저는 사람
언어/청각장애인	벙어리[18]/귀머거리[19]	벙어리/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귀먹은 사람/듣지 못하는 사람
시각장애인	소경[20]	장님[21], 소경[22], 눈 먼 사람	맹인[23], 눈먼 사람

2.3.『개역개정』(1998),『공동개정』(1999),『새번역』(2001)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

한국 교회는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비전을 안고 지난 세기에 사용했던 세 종류의 한글 번역본들을 거의 비슷한 시기(1998, 1999, 2001)에 개정하여 세 개의 한글 공인개정본들을 발간하였다(대한성서공회). 이 번역본들은 현대인에 맞는 한국어 어법과 용어들을 사용해서 원문에 충실하고 독자들에게 더 정확하고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대한성서공회는 개정

9) 마 11:5; 7:22; 행 3:2; 8:7; 14:8.
10) 눅 14:13, 21.
11) 마 15:30, 31; 18:8; 막 9:45.
12) 레 21:18; 삼하 4:4; 5:6, 8; 9:3; 19:26; 욥 29:15; 렘 31:8; 마 15:30, 31; 18:8; 막 9:45; 요 5:3.
13) 눅 14:13, 21; 행 8:7.
14) 욥 29:15.
15) 마 11:5; 15:30; 21:14; 막 9:45; 눅 14:13, 21.
16) 마 15:30, 31.
17) 마 15:30, 31; 21:14; 요 5:3; 눅 14:13, 21.
18) 출 4:11; 시 31:18; 38:13; 잠 31:8; 사 35:6; 56:10; 겔 3:26; 마 9:32, 33; 12:22; 15:30, 31; 막 7:37; 9:17, 25.
19) 출 4:11; 시 58:4; 사 29:18; 35:5; 42:18, 19; 43:8; 마 11:5; 막 7:37; 눅 7:22.
20) 출 4:11; 마 9:27, 28; 15:24; 눅 14:21을 비롯하여 67회 나타남.
21) 삼하 5:8.
22) 마 15:30, 31; 눅 14:21.
23) 마 15:30; 15:31.

의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이런 목표 때문인지 장애인 호칭들 역시 약간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2).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인식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이 개정본들의 발간 시기보다 약 20년 앞선 1981년 한국 사회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장애'(障碍)라는 표현을 공식화하게 되었는데 '장애'라는 표현은 영어의 disability를, 일본에서 사용하는 '장애자'(障碍者)라는 한자 표기를 다시 옮긴 것이다. 이후 1990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모든 종류의 장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각각 1998, 2001, 1999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이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난 세기의 부정적 호칭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담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공식적인 장애인 호칭들이 개정번역본들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동개정』은 달라진 한글 맞춤법에만 집중한 까닭인지 현재 공식적인 표현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거의 통용되고 있지 않은 '불구자, 곰배팔이, 절름발이, 소경,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같은 장애인 호칭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0여 년 전에 사용되었던 장애인 호칭들, 이제는 공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런 호칭들이 21세기에 이루어진 개정 번역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을 아래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 장애인 호칭에 대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비교

장애인 공식명칭	개역개정(1998)	공동개정(1999)	새번역(2001)
지체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24], 장애인[25]	불구자[26], 절름발이[27], 절뚝발이[28], 곰배팔이[29]	지체장애인(자)[30], 다리 저는 사람
언어/청각장애인	벙어리/귀머거리[31]	벙어리[32]/ 귀머거리[33]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벙어리[34]/귀먹은 사람, 귀머거리[35]
시각장애인	맹인[36]	장님[37], 소경[38], 눈먼 이(사람)[39]	눈먼 사람[40]

24) 마 15:30; 요 5:3.

25) 마 15:30, 31; 18:8; 막 9:43.

26) 마 12:13; 눅 14:13, 21; 행 4:9, 10, 14; 8:7; 14:8. 이요한에 따르면 1920-30년대에 한국의 신문 잡지에서 불구자(不具者)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지칭하던 일반적인 용어였다고 한다. 시

위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개역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비록 장애인이라는 공식적 호칭이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문둥이, 절뚝발이, 앉은뱅이, 불구자와 병신과 같은 비속어적인 호칭이 나타나지 않고 대신 완곡하게 장애인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개역개정』은『표준새번역』과『새번역』과 마찬가지로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신체적 기능에 따라 장애인을 호칭하고 있다. 공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지체장애인'이라는 호칭은 모든 개정본들 가운데『새번역』에서만 두 군데(행 18:7; 14:8) 나타나고 있다. 물론『개역개정』에서 장애인이라는 호칭이 신약성경에서만 모두 4회(마 15:30, 31; 18:8; 막 9:43)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의 장애인[41]이 어떤 종류의 장애인을 가리키는지 애매하게 되어 있다. 특히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으로 각각 번역된 헬라어 κυλλός과 χωλός는 일관되게 번역되고 있지 않다. 한 예로 헬라어 성경 마태복음 15:30에서 κυλλός에 대해『개역개정』은 '다리 저는 사람'으로,『새번역』은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공동개정』은 '절름발이'로, χωλός에 대하여 각 번역본은 차례로 '장애인', '지체를 잃은 사람'과 '곰배팔이'로 번역하고 있다. 두 개의 이 헬라

각, 청각, 언어 그리고 지체장애인, 성불구자, 정신불구자까지도 불구자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다. 그런데 1999년에 새로 개정된『공동개정』은 여전히 '불구자'라는 용어를 1977년에 번역된『공동』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요한, "1920-30년대 일제의 장애인 정책과 특징"(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4.

27) 레 21:18; 삼하 5:6, 8; 마 11:5; 15:30; 21:14; 막 9:45; 눅 14:13, 21 등 다수 나타남.

28) 욥 29:15.

29) 마 15:30, 31.

30) 행 18:7; 14:8. 1990년 이후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으로 상지, 하지 및 척추에 마비, 절단, 관절운동 제한 또는 변형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57.

31)『개역개정』에는 벙어리와 귀머거리라는 용어를 사람에게 적용한 예가 한 번도 없으나 개와 독사에게 각각 '벙어리라 개와 귀머거리 독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사 56:10).

32) 출 4:11; 시 38:13; 39:2; 사 35:6; 겔 24:27; 33:22; 마 9:32, 33; 12:22; 15:30, 31; 막 7:32, 37; 눅 1:20, 22; 11:14.

33) 출 4:11; 레 19:14; 시 38:13; 사 29:18; 35:5; 42:18, 19, 20; 렘 5:21; 마 11:5; 막 7:37; 눅 7:22.

34) 막 7:37.

35) 막 7:37.

36) 개역개정에 '소경'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맹인'(출 4:11; 레 19:4; 마 11:5; 15:30; 눅 14:13, 21; 요 5:3 등)이 63회 나타남.

37) 출 4:11; 민 16:14; 신 28:19; 벧후 1:9.

38) 레 19:14; 21:8; 욥 29:15; 마 15:30, 31; 막 8:23; 눅 14:21 등 모두 51회 나타남.

39) 마 15:14; 23:16, 17, 19, 24, 26; 눅 4:18; 요 9:1, 41; 롬 2:19.

40) 마 9:27; 11:8; 눅 14:21.

41) 정부는 1980년 이후부터 장애인 조사를 제도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1985년부터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를 장애인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56-57.

어들은 모두 신체 특히 다리(혹은 발)나 손이 기형이거나 기능적으로 마비되거나 손실된 것을, 특히 전자의 경우 단순히 상처 입은 사람도 가리킨다.[42] 또 마가복음 9:45에서 χωλός이 나타나는데, 세 개의 번역본들은 마태복음 15:30과는 달리 각각 '저는 자', '한 발을 잃은'과 '절름발이'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 두 헬라어에 대해 한글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헬라어가 『예수셩교젼셔』와 『개역』에서 『개역개정』으로, 『표준새번역』에서 『새번역』으로, 그리고 『공동』에서 『공동개정』으로 바뀐 번역의 예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일정한 원칙이나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개정되었다는 것과 장애인의 구체적인 장애 부위에 대한 고민 없이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

마 15:30

헬라어 성경	NIV	예수셩교젼셔	개역→ 개역개정	표준새번역→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
κυλλός	crippled	앉은뱅이	절뚝발이→ 다리저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절름발이→ 절름발이
χωλός	lame	병신	불구자→ 장애인	지체 장애자→ 지체를 잃은 사람	곰배팔이→ 곰배팔이

막 9:43, 45

헬라어 성경	NIV	예수셩교젼셔	개역→ 개역개정	표준새번역→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
κυλλός 막 9:43	maimed	병신	절뚝발이→ 다리저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절름발이→ 절름발이
χωλός 막 9:45	crippled	절룩발이	절뚝발이→ 저는 자	저는 발→ 한 발을 잃은	절름발이→ 절름발이

눅 14:13

헬라어 성경	NIV	NRSV	예수셩교젼셔	개역→ 개역개정	표준새번역→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
ἀνάπειρος	crippled	crippled	병신	병신→ 몸 불편한 자	지체 장애자→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불구자→ 불구자
χωλός	maimed	lame	앉은뱅이	저는 자→ 저는 자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절름발이→ 절름발이

42) W. Bauer, W. Arndt & F.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457, 889.

행 8:7

헬라어 성경	NIV	NRSV	개역→ 개역개정	표준새번역→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
χωλός	cripples	lame	불구자→ 장애인	지체장애인→ 한 손을 잃은 사람	불구의 몸→ 불구의 몸

위의 표에서 보듯이 마태복음 15:30에서 헬라어 χωλός을 영어성경 NIV는 lame으로, κυλλός을 crippled로 번역하고 있다. 반면 마가복음 9:43에서는 같은 헬라어 κυλλός을 maimed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에서 이 두 헬라어를 각각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이란 지체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장애인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명 없이 단지 장애인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두 헬라어의 원뜻처럼 이들은 모두 다리나 발에 일시/영구적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이 둘을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으로, 『공동개정』은 각각 '절름발이'와 '곰배팔이'로 번역해서 다리와 팔의 장애를 가리키는 것처럼 구분하고 있다. 누가복음 14:13에는 지체장애인에 대하여 자주 사용되는 κυλλός 대신 ἀνάπειρος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개역개정』은 '몸 불편한 자'로, 『새번역』은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공동개정』은 '불구자'로 또한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번역본인 『성경』은 '장애인'으로 번역하는 등 한글로 된 모든 성경이 장애의 종류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사도행전 8:7에 나타난 χωλός에 대하여 세 개의 개정본은 각각 '장애인', '한 손을 잃은 사람', '불구의 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같은 번역은 같은 종류의 장애를 말하고 있지 않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개역개정』은 장애인 기피/차별 용어를 의식적으로 고쳤다고 한다.[43] 예를 들면, '문둥병'은 '나병'으로, '소경'은 '맹인'으로, '곱사등이'는 '등 굽은 자'로, '난쟁이'는 '키 못 자란 사람'으로, '절뚝발이'는 '다리 저는 자'로, '벙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으로, '귀머거리'는 '못 듣는 사람'으로, '앉은뱅이'는 '못 걷는 사람'으로, '불구자'는 '장애인'으로, '병신'은 '몸 불편한 사람' 등으로 표현을 바꾸었다.[44] 물론 이런 용어 변경들이 기존의 장애인 호칭이 지닌 부정적 의미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것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공식 용어들이 아니다. 이를테면 못 걷는

43) 전무용, "성경번역과 장애인 관련 용어", 「성서한국」 45 (1999), 27-29.

44) http://www.bskorea.or.kr/about/owntrans/feature/feature01.aspx. 하지만 '장애인'이란 어떤 장애이든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부르는 총체적인 용어이다.

사람, 몸 불편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한정된 신체적 기능이나 모습만 강조하는 격이 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손이나 발(다리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통일하고 있다. 역시 마태복음 18:8(『개역개정』)[45]에서도 '장애인'과 '다리 저는 자'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의 장애인이 어떤 종류의 장애인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처럼 세 개의 한글 공인번역본들은 1998-2001년에 개정된 성경임에도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확실한 개념 없이 주로 지체장애인에만 적용하고 있다. 한글 성경이 개정되기 전의 한글성경들 즉 개역이나 『표준새번역』이나 『공동』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개역개정』에 단지 몇 군데 등장한 것이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2.4. 『성경』(2005)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

한편 한국 천주교회는 2005년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말 완역 신구약 합본 성경을 단독으로 내게 되었다. 지금까지 개신교회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과 『공동개정』을 한국 천주교회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5년 한국 천주교회가 성경전서 완역본 『성경』을 출간하였던 것이다. 『공동개정』이 나온 시기가 1999년이었던 만큼 시간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천주교회가 2005년 단독으로 펴낸 『성경』에서 장애인 호칭들의 변화를 찾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의 천주교회가 사용해 왔던 『공동』과 『공동개정』과 『성경』의 세 개의 번역본들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이 성경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표3> 『공동』과 『공동개정』과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의 변화

장애인 공식명칭	공동(1977)	공동개정(1999)	성경(2005)
지체장애인	불구자, 절름발이, 절뚝발이, 곰배팔이	불구자, 절름발이, 절뚝발이, 곰배팔이	**불구자**→ 그(이) 사람[46], 장애인[47], 병든 사람[48], 불구자[49],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50] , **절름발이**→ 다리 저는 사람[51], 절름거리는 이[52],

45)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마 18:8).

			절뚝거리는 이[53], **절뚝발이→** 다리저는 이[54], **곰배팔이→** 불구자[55]
언어/청각장애인	벙어리, 귀머거리	(반)벙어리, 귀머거리	벙어리[56], 말 못하는 이[57], 귀머거리[58]
시각장애인	장님, 소경, 눈 먼 사람	장님, 소경, 눈 먼 이	눈먼 이(사람)[59]

위의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호칭에 있어서 『공동』이나 『공동개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두 번역본들은 개정된 시기가 1977년에서 1999년까지 무려 20여 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장애인이나 언어 및 청각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호칭들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이 불구자, 절름발이, 절뚝발이, 곰배팔이,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소경, 눈 먼 이와 같은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공동개정』에서 장애인 문제나 호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천주교회 단독의 번역본 『성경』에서도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의 변화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공동』과 『공동개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구자**'라는 호칭이 『성경』에서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그(이) 사람', '장애인', '병든 사람',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혹은 여전히 '불구자'로, '**절름발이**'는 '다리 저는 사람', '절름거리는 이', '절뚝거리는 이'로, '**절뚝발이**'는 '다리 저는 이' 그리고 '**곰배팔이**'가 '불구자'라는 호칭으로 바뀌었다. 『성경』은 2005년 천주교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단독으로 새롭게 발간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구자', '병든 사람', '절름거리는 이', '절뚝거리는 이'와 같은 비속적인 장애인 호칭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성경』에서도 장애인과 병든 사람과 불구

46) 마 12:13; 행 4:10.
47) 눅 14:13, 21.
48) 행 4:9.
49) 마 15:30, 31; 행 8:7.
50) 행 14:8.
51) 레 21:18; 삼하 5:5, 8; 19:27; 사 33:23; 35:6; 렘 31:8; 마 15:30, 31; 막 7:22; 눅 7:22; 요 5:3.
52) 잠 26:7; 마 21:14; 막 9:44(45).
53) 미 4:6, 7; 습 3:19; 마 11:5; 15:30.
54) 욥 29:15.
55) 마 15:30, 31.
56) 출 38:13; 39:3; 겔 24:27; 33:22; 눅 1:20, 22; 11:14.
57) 출 4:11; 사 35:6; 마 9:32, 33; 12:22; 15:30, 31; 막 7:32(말 더듬는 이), 37.
58) 출 4:11; 레 19:14; 시 38:13; 사 29:18; 35:5; 42:18, 19, 20; 렘 5:21; 마 11:5; 막 7:32, 37; 눅 7:22.
59) 마 9:27, 28; 12:22; 15:30, 31; 눅 7:21, 22; 14:21.

자와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의 장애인이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외에 시각 장애인에 대하여 '장님'이나 '소경'이라는 비속어 대신 '눈먼 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언어나 청각 장애인에 대하여 여전히 '벙어리' 혹은 '귀머거리'와 같은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칭들은 일반 서적이나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통용되지 않는 비속어들인데 최근 발간된 『성경』은 여전히 이런 용어들을 장애인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20세기 후반에 나온 세 개의 개정본들과 2005년 한국 천주교회의 『성경』을 볼 때 21세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개정된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나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미약했거나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글성경 전체에서 지극한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땅한 자리가 성경 번역작업에서조차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장애인 호칭 문제는 조속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차기 성경 번역 작업에서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호칭의 대안적 제안

그렇다면 한글 성경에서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장애인 호칭은 무엇인지 현재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용어를 기초로 몇 개의 성경 본문을 수정 보완해 보려고 한다.[60]

3.1. 출애굽기 4:11

출애굽기 4:11의 『개역개정』 본문은 이렇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기에서 장애인/비장애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와 '눈 밝은 자'와 '맹인'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들은 차례로 עִוֵּר פִּקֵּחַ חֵרֵשׁ אִלֵּם이다.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 70인역에서 각각 δύσκωφος κωφός βλέποντα τυφλός로 번역되어 있다. 첫 번째 헬라어 δύσκωφος는 70인역이나 신약성경을 통해 유일하게 여기에

60) 성경 전체가 아닌 몇 개의 본문에서만 장애인 호칭 문제를 대안적으로 제시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임을 밝히고자 한다.

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청각 장애인을 가리키는 반면 κωφός와 τυφλός는 신약성경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소위 청각 장애인(혹은 언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각각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서 κωφός는 청각 장애인 혹은 언어 장애인 혹은 이 둘을 모두 가리키므로 어느 장애인을 가리키는지는 본문의 문맥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אִלֵּם에 대하여 70인역은 δύσκωφος으로, חֵרֵשׁ을 κωφός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전자는 청각 장애인이고 후자는 언어와 청각 장애인 양쪽이 가능하므로 반복을 피한다면 후자는 언어 장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 개의 영어 번역본(KJV, RSV와 NIV) 가운데 NIV 성경만 처음 히브리어 אִלֵּם(70인역 δύσκωφος)을 청각 장애인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KJV와 RSV는 언어 장애인으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헬라어 βλέποντα로 번역된 פִּקֵּחַ는 시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개역개정』은 '눈 밝은 자'로, 『새번역』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공동개정』은 '앞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 עִוֵּר(헬라어 τυφλός)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써 시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여기에서는 눈이 밝은 사람이라거나 앞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보는 이'[61] 즉 시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을 기초로 장애인 호칭을 염두에 두었을 때 『개역개정』 출애굽기 4:11을 다음과 같이 수정 번역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이나 '보는 이'나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3.2. 마태복음 15:30–31

마태복음 15:30-31은 예수의 기적 행위가 사방으로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개역개정』 마태복음 15:30-31은 그 장애인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등. 이 장애인들은 헬라어 원문 χωλός κυλλός τυφλός κωφός을 차례로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서 χωλός와 κυλλός는 의미상 거의 다르지 않다. 이 둘은 신체 특히 발이나 다리가 마비가 되었거나 절단되어서 걷는 데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이 둘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으로, 『새번역』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으로 그리고 『공동개정』은 '절름발이'와 '곰

61) 여기에서 '보는 이'라 함은 시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시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한자어로 통용되는 특별한 호칭이 없다. 이를테면 청각 장애인이 듣지 못하는 사람인 반면 청각이 있는 사람은 건청인이라는 용어를 현재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연구가 더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보는 이'로 표기하려고 한다.

배팔이'로, 천주교 200주년 기념성경인『성경』은 '다리 저는 이'와 '불구자'로 번역하고 있다. 이런 번역들은 지체 장애에 해당하는 헬라어 χωλός와 κυλλός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류의 장애로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지만 한글성경은 이 두 단어들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지칭하고 있어서 어떤 장애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를테면 χωλός에 대하여 세 개의 한글 개정번역본들과『성경』은 '다리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절름발이'와 '다리 저는 이'로, κυλλός은 '장애인', '지체를 잃은 사람', '곰배팔이'와 '불구자'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사실 이런 번역들은 같은 장애를 말하지 않는다. χωλός와 κυλλός는 둘 모두 헬라어 사전에서도 장애의 특성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단지 신체의 절단이나 마비로 인해 걷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χωλός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구약의 본문이 있다. 그 예는 므비보셋의 장애에 대해 설명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사무엘하 4:4를 보면 므비보셋이 장애를 갖게 된 연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원문: 넘어져) 절게 되었더라**(『개역개정』)". 므비보셋이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만 그와 함께 있던 유모가 급하게 5살 난 그를 데리고 도피하다가 므비보셋이 넘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절게 되었다. 이때 히브리어 원문은 פִּסֵּחַ(니팔형으로 사용)이 사용되었고, 70인역은 므비보셋에 대하여 χωλός라고 지칭하고 있다(삼하 5:6, 8). 그렇다면 적어도 χωλός은 다리나 발에 장애가 있어서 걷는 일이 불편한 것은 맞지만 걷지 못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나중에 므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한 적이 있다(삼하 9:5). 이것을 볼 때 므비보셋의 장애 정도를 정확하게 본문만으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장애를 말하는 듯하다.[62] 그렇다면 κυλλός는 이보다 심각한 정도의 장애를 말하지 않을까 추측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 둘은 모두 손과 발과 같은 지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둘(χωλός와 κυλλός)을 합쳐서 '다양한 지체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나은 듯하다. 그리고 그 다음 두 개의 헬라어 τυφλός와 κωφός는 각각 시각장애인과 언어 장애인(혹은 청각 장애인[63])을 가리킨다.

62) 히브리어 원문 역시 두 다리를 다쳤다고 하는데『새번역』은 두 다리에 장애를 입었다고 언급("두 다리를 접니다")하고 있을 뿐 다른 번역은 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63) 청각 장애인은 대체로 언어 역시 장애를 갖는 중복 장애인이 많다. 특히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청각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언어 장애도 함께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31절에서 κωφός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는 것을 볼 때 30절의 κωφός을 언어 장애인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5:30의 장애인들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 "언어 장애인". 이것을 기초로『개역개정』에서 장애인 호칭을 수정해서 마태복음 15:30-31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다양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 '언어 장애인'과 기타 여러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언어 장애인'이 말하고 '지체장애인'이 온전하게 걸으며 '시각장애인'이 보게 된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3. 누가복음 14:13

누가복음 14:13, 21에서 잔치에 초대할 대상으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개역개정』)이 명시되었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들은 차례로 πτωχός ἀνάπειρος χωλός τυφλός이다. 첫 번째 단어 πτωχός 외에는 모두 다양한 장애인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두 번째 헬라어 ἀνάπειρος는 여기에서만 발견되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영어 성경(KJV, NIV, NRSV) 역시 ἀνάπειρος에 대하여 the maimed와 the crippled를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손이든 발(혹은 다리)이든 또 절단이든 마비이든 ἀνάπειρος는 지체장애인을 가리키는 듯하다. χωλός와 τυφλός에 대해서는 통상 신약성경에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한편『새번역』은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로,『공동개정』은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으로 번역하고 있다. 종합하면 세 개의 번역본은 헬라어 ἀνάπειρος 에 대하여 각각 '몸 불편한 자',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불구자'로, χωλός을 각각 '저는 자', '다리 저는 사람'과 '절름발이'로, τυφλός을 '맹인', '눈먼 사람'과 '소경'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처럼 한글성경은 ἀνάπειρος와 χωλός에 대하여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고 대체로 다양한 지체장애인을 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개역개정』누가복음 14:13에 대하여 ἀνάπειρος와 χωλός를 합해서 다양한 지체장애인으로 이해하여,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다양한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3.4. 사도행전 8:7

사도행전 8:7에 나타나는 장애인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개역개정』)이다. 이것들은 헬라어 παραλελυμένοι와 χωλός을 각각 번역한 것이다. 특히 세 개의 한글개정번역본은 각각 '장애인', '한 손을 잃은 사람', '불구자'로 번역하고 있어서 모두 다른 장애를 지칭하고 있는 듯한데, 사실 헬라어 χωλός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χωλός은 손이나 발과 다리 같은 지체에 약간의 장애를 가리킬 뿐[64] 장애 부위나 정도를 말하지 않기에 지체장애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그러므로 『개역개정』 사도행전 8:7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이 나으니"로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신구약성경에 장애인들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대체로 같은 원어들을 사용한 장애인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하고 무시하고 조소하는 비속어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개정하는 일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우리는 간호원, 운전수, 청소부, 식모 등과 같은 호칭을 일상적으로 사용했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호칭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신 간호사, 기사, 생활도우미와 환경미화원과 같은 중립적인 신종어들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이같은 호칭 변화는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 의식과 무시하는 태도의 반성과 함께 모든 직업에 대하여 귀천을 따지지 않는 인식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는 몇몇 직종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비슷한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 호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개정된 한글번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장애인 호칭들은 이런 인식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비하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용어들이 그대로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

---

64) 므비보셋을 χωλός라고 지칭한 것(삼하 5:6, 8; 9:5)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예레미야 31:7-9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개역개정』)

이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북쪽의 땅과 땅 끝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곳은 원래 적군들의 거주지였으나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 거주할 땅이 될 것이라고 한다(렘 6:22).[65] 바로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때 "**맹인(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지체장애인)**[66]**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함께 포함된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에 귀환하기 위한 이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아이 출산 때문에 몸이 부자유한 여인이어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이사야는 종말론적인 미래 건설에서 장애인의 치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 때에 **눈먼 사람(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 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지체장애인)**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사 35:5-6a).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은 불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척되지 않는 온전히 통합된 이스라엘, 이렇게 예언자들은 다양한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과 통합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호칭 역시 수용 가능하고 중립적인 용어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요즘 장애인에 대하여 누구도 불구자, 병신, 절름발이, 절뚝발이, 소경, 장님, 벙어리와 귀머거리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비속어들이고 이들을 사회 밖으로 밀어

65) W. Holladay, *Jeremiah 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184.

66) 이 두 집단은 사회에서 은유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인데,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S. Vargon, "The Blind and the Lame", *VT* 46 (1996), 501.

내는 주변적이고 배타적인 호칭들이다. 언어는 그 시대의 정신이자 수준이며, 그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 사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은 번역이 이루어진 시대의 보편적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가치를 담고 있다.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보편적 언어를 담은 성경은 장애인 호칭에 있어서 그 번역이 이루어진 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자리를 가늠하게 해준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성경의 언어와 가르침은 성경 독자와 신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장애인 호칭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차별적이고 편견을 담게 될 때 비록 몇 단어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장애인에 대하여 편견이나 왜곡된 이미지를 진리로 굳히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장애인 호칭의 문제는 이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차후의 성경 번역은 장애인/사회적 약자의 시각이라는 측면이 중요한 번역 원칙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 호칭들이 가치중립적이고 사용 가능한 용어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장애인 호칭, 대한성서공회, 장애인, 장애인의 시각, 한글 공인 번역 성경.
the titles of the disabled people, Korean Bible Society, the disabled people, the view point of the disabled, the Korean Versions.

(투고 일자: 2012. 3. 16, 심사 일자: 2012. 4.2, 게재 확정 일자: 2012. 4. 20)

<참고문헌>(References)

『예수셩교젼셔』, 봉천: 문광서원, 광서 13 (1887).
『셩경 개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38.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http://www.bskorea.or.kr/about/owntrans/feature/feature01.aspx.
W. Bauer, W. Arndt & F.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BAGD)*,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W. Holladay, *Jeremiah 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S. Vargon, "The Blind and the Lame", *VT* 46 (1996), 498-514.
나채운, 『번역 및 해석 '예수셩교젼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 24 (2003), 309-361.
이요한, "1920-30년대 일제의 장애인 정책과 특징",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전무용, "성경 번역과 장애인 관련 용어", 「성서한국」 45 (1999), 27-29.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서울: 양서원, 1997.

<Abstract>

Terms Referring to the Disabled in Korean Bible Versions and their Alternatives

Prof. Unha Chai
(Hanil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Since the very beginning of the Korean church, it has produced Bibles translated in Korean and has continually revised them. The first Korean New Testament named『예수셩교젼셔』was published in 1887. From that time on, the Korean church published the Korean Revised Version named『셩경 개역』in 1938 (1952 and 1961) and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개역개정판』) in 1998 which are being used widely among Protestant churches. There are two common translations of the Holy Bible translated by both the Protestant and Catholic churches named『공동번역』in 1977 and『공동번역 개정판』in 1999. In addition to them,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표준새번역』was made in 1993 and was again revised in 2001 and its Korean name was changed to『새번역』. Again, Korean catholic church produced its own Bible『성경』recognized by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in 2005.

This essay studies the terms referring to the disabled people in various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mentioned above from the view point of the disabled people. The problem of the terms used in Korean versions is not simple at all. While they have been translated into Korean in various versions published over 100 years, changes are being made slowly from bearing very negative, underestimated and mistreated meaning to more neutral and sound designations. However, it is pointed out in this essay that from the view point of the disabled people, the changes are not fully made yet and they are alternatively proposing changes in several locations of the Bible with references to the disabled in accordance with The Welfare Act for the Disabled which came into effect since 1990. The language of the Bible has the power and can have a great influence upon Bible readers because it is God's word. Therefore the terms used to refer to the disabled need to be revised into words with sound and neutral meaning and nuance according to our times' spirit and fashion.